

[ 여행 ]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티벳 '니엔칭탕굴라' 탐험

대한산악연맹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여름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를 전 세계의 오지 산악지대에 파견하고 있다.



100일간의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한국인으로선 두 번째로 치즈피크(6,206m) 정상에 오른 대원들.



중국 티벳자치구의 주도 라싸(拉薩)에 자리잡은 포탈라궁.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기 전까지 티벳의 정치·종교 본산이었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공원을 이룩한 비행기는 2시간만에 티벳자치구의 주도(主都)인 라싸(拉薩)공원에 사뿐히 내려앉는다.

'티벳의 중국화' 실감

'티벳의 중국화'를 가장 실감케하는 곳이 라싸다. 낮익은 중국어 간판, 즐비한 중국식당, 현지인 보다 많은 한족들.

◇남가바와·알롱칭호 협곡=중국과 티벳 국경에 위치한 니엔칭탕굴라산맥은 북위 30~31도에 위치한 길이 750km의 거대한 산군이다.

라싸시내를 빠져나가면 황량한 벌판이다. 420km에 달하는 좁은 포장도로를 따라 버스도 9시간동안 이동한 다음 다시 가파른 비포장도로를 꼭대기까지 달리면 협곡 탐험이 시작되는 파름(해발 2,200m)에 다다른다.

남가바와산(7,781m)과 가리베이봉 사이에 형성된

웅장한 두 협곡은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희귀종들도 많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입산허가서가 있어야 하며, 야영지에선 밤새 거머리와 쇠파리에 시달려야 한다.

협곡의 지류를 탐사하는 동안 상류쪽에서는 만년설 녹은 희색빛의 물살이 거세게 내리친다.

티벳이 걸어서는 안돼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을 실감케한다. 허가서 없이 이동하다 공안에게 걸리면 100~1천위안의 벌금을 내야 한다.

5000m 고봉을 넘어

◇주라산(5,220m)=마사동과 마을을 지나 주라산을 넘어 아짜타호를 사흘 일정으로 탐사하는 코스다. 제법 큰 마을인 주라·가담 마을에서 말과 마부들을 고용해 식량과 장비를 한꺼번에 옮기기 위해 대원들은 30kg 이상씩 짐을 지고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척박한 산등성이를 오른다.

조선희동역과 티벳인 가이드는 주라산까지 거리와 소요 시간조차 알지 못한다. 사람들의 발길이 그만큼 드물다는 얘기가. 직접 올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눈과 우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해발 4,500m를 넘어서자 여성대원들이 힘들어한다.

다르니 작은 돌탑과 초르텐이 펼쳐져 있다. 아짜타호는 만년설이 녹아 만든 자연호수로 해발 4,500m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유목민들이 부락을 이뤄 살고 있다. 짜리시에 도착하니 공안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본다.

설원 지나 정상에 '우뚱'

◇치즈피크(6,206m)=정부연락관, 등반가이드와 함께 나흘일정으로 베이스캠프(BC: 4,700m)를 출발한다. 식량과 장비를 한꺼번에 옮기기 위해 대원들은 30kg 이상씩 짐을 지고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척박한 산등성이를 오른다.

도중에 티벳등산학교 강사들로 이루어진 등반대와 마주친다. 전 날 치즈피크 정상에 올랐지만 눈이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고성이 심했다며 행운을 빌어 준다. 사실 치즈피크에 대한 높이를 제외하고 알려진 정보가 없다. 각정이 앞선다.

이튿날 길이 30m의 빙벽 두 곳에 고정로프를 깔고 차례로 오른다. 대원 숫자가 많아 빙벽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게다가 화이트아웃으로 사방



치즈피크(6,206m)를 등정한 대원들이 고정로프를 잡고 칼날 빙벽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을 분간할 수가 없다. 정상부의 설사면은 가파르고 크레바스와 커니스 때문에 위험하다. 정상에 300여m 남거든 칼날 빙벽에서는 고정로프에 주마를 걸고 올라선다.

주인 잃은 성지

◇포탈라궁=라싸로 돌아와 14대 달라이라마가 인도 망명 전까지 거주했던 겨울궁전 포탈라궁을 찾는다. 포탈라는 티벳어로 '깨끗한 땅' 즉 성지라는 뜻이다.

동서 400m, 높이 116m로 백궁과 홍궁으로 나뉜다. 백궁에선 정자를, 홍궁은 종교행사를 주재했다 한다. 하루 입장객은 2천300명으로 제한돼 있으며 정해진 예약시간에 맞춰 가야 한다.

내부에는 역대 달라이라마의 무덤과 침실, 거실, 도서관 등 수천개의 방이 있고 그 안에는 20여만개의 불상과 벽화가 있다. 주인 잃은 포탈라궁은 50년 전 모습을 간직한 채 그대로 멈춰있는 듯하다.

전정식 <2006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지도위원·광주광역시산악연맹 이사>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hong, Yuseong, Ina, Dongbu, Haikrak, and Jeonwon. Each ad lists contact information and property details.